

## 未來社會와 職業世界

李 定 根

(職業訓練研究所 所長)

## I. 우리 나라의 發展 展望

社會變動이 職業에 영향을 주는 또는 職業의 變化가 社會변화를 초래하든간에 職業과 社會間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職業世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社會가 어떻게 발전해 왔고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변화해 갈 것인지 展望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의 發展過程을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를 10년 단위로 나누어 社會構造, 産業形態, 産業政策의 측면에서 고찰해 보고, 이에 따라 技術 및 教育水準은 어떻게 변화했으며 人力形成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전망해 보겠다. 다만 여기 提示된 內容은 筆者 나름대로의 견해를 미리 밝혀둔다.

우선 우리 나라의 社會構造를 살펴보면 1인당 국민소득이 100\$ 미만인 1960년대 초반까지는 農耕社會로 지칭될 수 있으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면서 점차 産業社會로 移行하게 되었다.

産業社會는 1990년대 후반까지 계속될 전망이며 2000년대 초반부터는 우리도 脫工業社會를 맞게 될 것이다. 특히 第5次 5個年 計劃부터는 社會開發에도 투자를 시작하므로 1980년대 후반부터는 우리 나라도 福祉社會로 접어들 것이다.

産業形態는 간단한 농기구의 섬유류를 생산하던 家內手工業이 産業化의 영향을 받아 점차 勞動集約的 産業으로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이때에는 이미 先進國에서 公營 내지는 斜陽産業으로 간주되던 낡은 플랜트가 많이 들어와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農業이 아닌 工業이란 새로운 手段으로도 富를 축적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부터는 이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建設과 造船部門에서는 先進國 水準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 나라의 勞動集約的 産業은 노동임금의 상승과 後發工業國의 이 분야 진출로 인하여 더 이상의 發展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컴퓨터나 자동차 등 중화학공업제품을 주로 생산수출하는 技術集約的 産業으로 전환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技術集約的 産業도 점차 사양화되는 脫工業社會에서는 第3次 산업과 知識集約的 産業에 중점을 두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때쯤이면 우리도 명실공히 先進國의 대열에 설 수 있을 것이다.

산업형태가 가내수공업을 거쳐 勞動集約的, 技術集約的 및 知識集約的 産業으로 바뀌어 감에 따라 産業政策도 이에 부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즉 家內手工業을 勞動集約的 産業으로 轉

환시키기 위해서는 도로, 항만, 용수 등의 産業 基盤을 조성하고 우선 輕工業을 육성해야만 했다.

勞働集約的 産業을 技術集約的인 形態로 바꾸기 위해서는 철강, 기계, 정유산업을 육성하여 重化學工業의 기초를 다져야 한다. 또 技術集約的 産業을 知識集約的 産業으로 移行시키기 위해서는 研究·開發에 많은 투자를 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해내도록 産業政策이 바뀌어져야 한다.

이러한 産業을 뒷받침하는 우리의 技術水準은 1억불 수출을 달성하기 이전까지는 대체적으로 原始的 수준이었으나, 수출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外部技術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술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비싼 로열티를 감수하지 않을 수 없지만, 점차 우리의 技術水準이 향상됨에 따라 이를 修正하여 로열티 지급을 회피하게 되었다.

그러나 外國에 技術로열티를 치르지 않게 되고 또 우리의 상품이 國際市場에서 그들의 상품과 競爭을 벌이게 되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더 이상 技術을 내보내려 하지 않고 이미 제공한 플랜트나 기계에 대한 技術支援이나 부품공급에도 난색을 표명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자 정부와 産業界에서는 技術을 自體的으로 開發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도달한 것을 알고 자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과 노력이 지속된다면 상당한 수준의 技術도 자체 개발이 可能한 것이며 결국은 우리의 技術도 輸出할 날이 멀지 않을 것이다.

産業發展에 따른 기술수준의 변화는 人力形成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學校教育에도 영향을 미쳤다. 원시적 수준의 기술로 가내수공업을 경영할 때는 單純勞働者가 필요했지만, 외국의 플랜트를 들여와 각종 제품을 조립하기 시작하고 부터는 한두 가지 技術을 가진 技能工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工業高等學校와 職業訓練所의 육성은 불가피하였다.

그러나 勞働集約的 産業이 技術集約的 産業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技術人力의 高級化 내지는 質的向上이 先行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專門

大學을 육성하고 職業訓練의 기간을 연장하여 生産技術工, 設計技術工 및 技術工學者란 명칭의 중간 기술자를 양성해야 한다.

또 技術集約的 産業을 知識集約的인 形態로 바꾸기 위해서는 自體技術開發 能力이 탁월한 技術者와 研究·開發部門에 종사할 科學者를 많이 배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大學과 大學院 教育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II. 産業構造의 變化

우리 나라의 산업은 1981년 당시 농림 수산업이 35%를 차지하고 광공업이 25%를 점하며 3차 산업이 42%를 점유했으나, 1991년에 가서는 농림 수산업이 25%로 줄어들고 대신 광공업과 3차산업이 각각 30%와 45%로 늘어날 전망이다.

추정방식과 연대는 좀 다르지만 1900년의 美國의 경우를 보면, 제 1차 산업이 44.5%, 제 2차 산업이 25.2% 그리고 제 3차 산업이 30.3%였다. 그러나 약 70년 후인 1973년에는 이 비율이 각각 5.2%, 29.7%, 65.1%로 변화되었다.

産業構造의 전환에 따라 職業別 종사자도 변화되었는데 1900년에는 전문직을 포함한 사무직에 17.6%, 생산 기술직에 44.8%, 농업에 37.6%가 종사하였다. 그러나 1973년에는 사무직에 47.8%, 생산 기술직에 48.6%, 농업에 3.6%가 종사하였다.

이 중 특기할 만한 것은 농업 종사자가 팔복할 정도로 줄었다는 것이다. 취업자의 3.6%밖에 차지하지 않는 농부가 자신을 포함한 全美國人을 먹이고도 식량이 남아, 수출까지 하고 있고 政府에서는 농업생산량의 증가를 막기 위해 일 정비율의 농토는 재배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營農의 機械化와 농작물에 대한 研究開發의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農業生産性은 工業에도 영향을 미쳐, 自動機械와 産業로봇의 출현은 수많은 생산 기술자를 工場으로부터 몰아낼 전망이다. 그러던 이러한 産業構造의 변화에 따라 職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人力構造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技術分野를 중심으로 생각해보자.

産業革命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科學者 또는 發明家가 자기의 아이디어를 技能工으로 하여금 구체화시키도록 하였다. 이때의 發明品이야 보잘 것 없는 것이었으므로 이를 大量生産할 必要가 별로 없었다.

그러나 産業革命이 일어나고부터는 기계에 의한 大量生産이 보편화되고 家內手工業도 점차 企業化되었다. 대량생산을 위해서는 技能工이 많이 필요하므로 이들을 教育시키고 機械가 고장나면 修理도 해야 할 새로운 技術集團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례서 생겨난 것이 바로 技術者 또는 技士이다.

당시의 기술자는 科學者보다는 技能工과 밀접히 일하기 시작하였지만 이때는 作業工程도 標準化되지 않았고 상품도 規格化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이 경제발전에 주력하고 국민의 所得水準도 향상됨에 따라 어떻게 하면 많은 제품을 일정한 水準을 유지하며 빨리 生産해 낼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때에 생각해 낸 것이 製品을 規格化하여 生産工程을 標準化하고, 별도로 생산된 부품을 한 군데서 組立하는 生産方式이었다. 생산공정을 標準化하기 위해서는 技術者의 도움이 필요하였고 여러 종의 部分品을 한군데에서 組立하기 위해서는 큰베어벨트에 수많은 技能工이 달라붙어야 했다.

이때 만약 어느 技能工이 실수를 하여 부품을 잘못 만들었다든지 제품의 조립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했다고 하면 製品 자체를 못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技術者와 技能工간의 교량 역할을 담당할 技術集團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技術工이다.

그러나 一貫作業에 의한 生産은 人間을 기계의 부속품으로 간주하였고, 단조로운 作業을 반복하게 됨에 따라 不良品의 발생율도 늘어나고 技能工들도 자기의 직업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이때에 電子工學의 발달은 自動機械와 産業로보트를 출현시켜 기능공이 하던 단순 반복작업을 떠맡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技能工이 하던 일을 代身할 자동기계와 산업로보트를 設計하고 修理할 새로운 技術集團이 출현하였는데 그들이 바로 技術工學者이다.

技術工學者는 주로 4년제 大學에서 양성되는데, 현재 設立이 추진되고 있는 가칭 “韓國産業技術大學”은 바로 이들 技術工學者를 양성하기 위한 大學이다.

지금까지 서술한 人力構造의 變化를 정리해 보면 技術者는 산업혁명시에 나타났고 勞動集約的 産業時代에는 技術工이 출현하였으며 技術集約的 産業時代에는 技術工學者가 탄생할 전망이다. 또 技能工은 勞動集約的 産業에서 그 수요가 最大가 되지만 점차 그들의 必要는 감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기에 서술된 것은 일반적인 추세만을 나타낸 것이므로 産業의 종류와 그 發達程度에 따라 이것이 적용될 수도 있고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 Ⅲ. 大學과 職業世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大學을 상아탑으로 생각하고 있다. 즉 大學은 現實과 동떨어진 곳으로 實用的인 것보다는 理想的인 것을 추구해야 하며, 大學에 입학한 사람은 졸업후 취업을 목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思考方式이다.

또 大學의 教授, 研究, 奉仕의 세 가지 機能中에서 研究機能을 최우선에 두고 學生에 대한 指導(教授)나 지역사회에 대한 奉仕의 기능은 덜 강조하는 것이 우리의 現實이다. 또한 어떻게 해서든지 학생들의 大學進學率을 문화시켜 보려는 것이 많은 教育者들의 의도인 것 같다.

그러나 高等學校 卒業者의 50%가 大學에 진학하고, 大學院에 등록한 學生數가 해방 직후의 大學生數를 상회한 지금에 와서도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 것인가는 再檢討하여야 할 사항이다.

美國의 경우 1964-65학년도에 수여된 學士學位수는 501,248개, 碩士學位는 117,152, 博士學位는 16,467개에 불과했지만 20년후인 1984-85학년도에는 學士가 1,076,000, 碩士가 339,800 그리고 博士가 42,900명이라는 추산이다. 이렇게 많은 수의 高等教育 수혜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사회적 대우도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는 직업도 그들이 받는 大學教育

에 상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研究는 1958년도 졸업생의 약 90%가 專門職에 종사했지만 1971년도에는 30% 이상이 자기 전공과 관련이 없거나 非專門職에 종사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최근에는 博士學位 所持者 中の 많은 사람이 직업을 얻지 못하여 大學에서는 이들의 취업대책에 부심하고 있다고 한다.

들른 敎育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의 수입은 증가한다고 한다. 1974년도 조사에 의하면 國民學校단을 졸업한 사람은 平生 동안 345,000 \$만을 벌게 되지만 高等學校를 나오면 480,000 \$로 소득이 증가되고 大學을 졸업한 사람은 710,000 \$를 벌 수 있다고 한다. 또 大學院을 나온 사람은 825,000 \$가 一生 동안 벌 수 있는 平均所得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平均值이기 때문에 個人差가 상당히 크다. 博士學位 소지자 중에도 人文科學이나 社會科學을 전공한 사람보다는, 工學이나 醫學을 전공한 사람이 보수도 많고 일자리도 많다. 이것은 高等教育을 받았다고 모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分野와 個人의 노력 여하에 따라 대우가 달라짐을 의미한다.

앞으로의 社會는 高度産業社會이자 情報社會가 되어감에 따라 새로운 知識과 技術을 소지한 사람만이 좋은 職業을 가질 수 있다고 보면 大學敎育이 普遍化될 것은 不問可知的 事實이다. 이것은 곧 大學敎育이 職業敎育과 同一視될 날이 멀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다.

美國의 경우 職業敎育이 中等敎育의 水準을 넘어 短期大學으로 이행된 지 오래고 멀지 않아 大學敎育이 곧 職業敎育化될 전망이다. 우리 나라도 中學校수준의 實業敎育이 모두 高等學校로 올라간 지 오래고 지금은 高等教育機關으로의 移行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大學도 이제부터 그 性格과 機能을 재검토하여 職業敎育機關化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大學의 기능 중 研究機能은 점차 大學院이나 研究機關에 맡기고 학생들의 敎育과 지역사회에 대한 奉仕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大學의 敎育內容도 전통적인 것에서 점차 탈피하여 社會와 職業이 요구하는 內容을 보다 강조하여야 하며, 이들의 要求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수시로 점검하여 敎育內容에 반영시켜야 한다.

또한 知識과 技術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最新의 것을 가르치도록 노력하되, 학생 스스로도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가르칠 (teaching how to learn) 필요가 있다. 가급적이면 새로운 변화에 대한 短期講座를 수시로 개설하여 필요한 사람이 배울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大學의 奉仕機能 中の 하나이다.

職業과 관련하여 大學에 바라고 싶은 것은 進路指導를 강화해 달라는 것이다. 대학에서 무슨 進路指導가 필요하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職業世界가 항상 변화하고 있으며, 많은 학생들이 進路의 決定을 大學水準으로 미루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가 요청된다.

卒業이 가까와 오면 이들에 대한 취업 알선도 大學이 담당하여야 할 任務 中の 하나이다. 많은 대학이 학생들의 就業問題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大學은 취직을 위한 곳이 아니다”라는 思考方式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앞으로 좋은 大學의 評價基準은 얼마나 職業과 가까운 敎育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大學의 卒業生이 몇 퍼센트나 취업을 했으며, 그들이 職業世界에서 얼마나 잘 적응하고 발전하는가가 될 날이 멀지 않았다.

小數가 아닌 多數를 위한 大學, 現實에 바탕을 두고 理想을 추구하는 大學, 學生의 職業을 염두에 두고 열심히 가르치는 大學, 그리고 社會를 위하여 奉仕하는 大學이 곧 國民을 위한 國民의 大學이다. \*